

중부권

담양 메타세쿼이아 살아 남았다

국도 24호선 확장공사 선형 변경
벌목 위기 37그루중 4그루만 잘려

담양~순창간 국도 24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라 베어질 위기에 처했던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본보 2009년 11월 19일자 3면)이 대부분 보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도로계획상 편입 지장물포 포함해 잘릴 예정이던 학동교 구간 20그루와 금월교 구간 17그루 등 총 37그루의 가로수 가운데 학동교 구간은 전체를 살리고 금월교 구간역시 모두 보존하되 도로가 직접 통과하는 4그루만 자른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훼손위기에 처했던 담양을 금월교 인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이번 합의에 따라 전선단 4그루만 잘려지게 된다.

학동교~금월교~대곡리 구간 도로 선형 및 금월교와 입체교차로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되 가로수길로 진입하는 우회로는 개설하지 않기로 했다. 담양읍~금월교 앞에서 금성면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입체교차로 아래를 통과하는 길이 35m·높이 7m 내외의 통로바스가 설치된다.

광산구청과 광산로 상가 주민 사이에 첨예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광산구가 광산로(광주 송정역~국민은행앞)에 차있는 거리 조성으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나서자 상인들은 상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맞서고 있어 팽팽한 긴장감마저 들고 있다.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하다



기원태 (중부취재본부 기자)

구는 상가 주민들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않는다'며 조급함을 아쉬워 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익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매주 금요일을 축제의 날로 지정하고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고객을 유인하고 이들의 소비를 통해서 적은 이익이라도 상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녹십자 화순 결핵 백신공장 첫 삽

1800㎡ 규모 내년 완공
에이즈·말라리아와 함께 '세계 3대 질병'으로 꼽히는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공장이 2011년 화순에 들어선다. 화순군은 "지난달 30일 녹십자가 화순의 백신공장 부지내 연면적 1800㎡에 연건 1천만도스(1회 접종량) 규모의 결핵 예방백신(BCG 백신) 생산 시설 기공식을 거행했다"고 2일 밝혔다.



녹십자 화순공장 BCG관 기공식

남성성기능강화제
본 성기능 강화제는 환분,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같은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지방강장작용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노음이 된다는 임상실험결과가 있고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높여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류리아프린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시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4면 권역)
\*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아리울공인중개사
▶ 전선건물(투자, 직영, 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매가 7억
\* 직영시 월 수입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용차 2억 이상 가능
▶ 투자용 펜션 단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

탑부동산투자경매
\*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대림 e-편한세상 124동 맞은편(구 송원대학 정문 앞)
\* 전국 경매 물건 상시 상담 가능. 특히, 서울지역 투자 고객/지녀 주거 문제 해결 도우미
\* 직원모집 (경매 유경험자)

“70년 애환 노안·고막원驛 살려주세요”

철도청, 이용객 줄어 7월부터 폐쇄...니주지역 주민들 반발

70년 동안 니주 지역주민들의 애환과 추억이 깃든 노안역과 고막원역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에 따르면 1930년부터 운영돼 온 노안역과 고막원역 열차 이용객이 2000년대 들어 크게 줄어들어 오는 7월부터 폐쇄할 예정이다. 직원 3명이 근무하는 노안역의 경우 하루 평균 열차 이용객이 2006년 7명에서 2007~2008년 1명, 2009년 0.8명으로 줄어들었다. 또 고막원역은 2006년 13명에서 2007~2008년 6명, 2009년 5.7명으로 감소했다.



“홍길동 축제에 오세요”
홍길동 캐릭터가 지난날 29일 서울 인사동거리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정성홍길동축제' 홍보를 벌이고 있다.

영산강 지류 지식천 생태환경 우수

영산강의 지류인 화순군 도곡천 양교 주변 지식천의 생태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천 상류의 수질, 어류, 식물에 대한 생태환경을 조사한 결과 천양교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0.8mg/l로 하천수 수질환경 BOD 기준 1등급으로 나타났다. 어류는 피라미·참돔 등 19종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생물 지표종에 따른 생물등급이 '좋은-보통' 수준의 어종 변화도 기대된다.

산악인명구조 훈련

담양소방서(서장 신봉수)는 불철행각을 맞아 산악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담양 추월산과 장성 백암산에서 산악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119 구조·구급대원 35명과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산관리사무소 직원 7명 등 모두 42명이 참여해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점검하고 산악사고 대응능력을 배양했다. 이번 훈련은 ▲로프를 이용한 인명구조 ▲바스켓이용 환자이송요령 ▲부상환자 응급처치요령 등을 실시했다.